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net

주일오전설교 **하나님의 복 주심과 언약**

[창세기 9:1]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서는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첫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도 복 주시며 동일한 말씀을 하셨었다(창 1:28). 복(福)은 좋은 것을 가리킨다. 본문은 자녀 출산을 복이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아들들이 많은 자녀를 출산하여 수적으로 많아지고 온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다. 다산(多産)은 큰 복이다.

[2-3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어있음이라. 무릇 산 동물살아 움직이는 것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사람은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창조되었다(창 1:26, 28). 사람이 그 동안 이 임무를 잘 수행했는지 모르나, 이제 다시 그 임무가 강조된다. 사람은 다른 생물과 본질이 다르다. 피조물들 중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므로 사람이 다른 생물들을 섬겨서는 안 되며 그것들을 다스려야 한다. 그러나 역사상 사람들은 무지하게 피조물을 조물주처럼 숭배했고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피조물들의 형상들로 바꾸었다(롬 1:23).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본래의 음식은 채소와 나무 열매이었다(창 1:29). 그러나 홍수 심판 이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물고기와 새와 땅의 짐승과 기는 것 등 살아 움직이는 것들을 음식으로 허락하셨다. 이제 육식(肉食)은 사람에게 정당한 음식이 되었다. 물론 이것은 명령이라기보다 허용이었다. 아마 홍수 후 사람들의 기력은 급격히 약해진 것 같다. 사람의 수명은 1,000살에서 100살로 급격히 감소되었다.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신 것은 아마 이런 이유, 즉 사람의 기력의 쇠약해짐과 더 많은 영양분의 필요 때문이었을 것이다.

[4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육식을 허용하셨지만, 한가지 단서가 있었다. 그것은 고기를 살아 있는 채로, 즉 피가 있는 채로 먹지 말라는 것이었다. 이런 단서를 두신 까닭은, 아마 산 생명체를 그대로 먹는 것이 잔인한 행동이며 피가 생명이라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함인 것 같다.

특히 피와 생명은 신비하게 연관되어 있다. 피는 곧 생명이다(레 17:11). 짐승의 생명도 피에 있고 사람의 생명도 피에 있다. 몸무게가 60kg인 사람의 몸에는 약 5리터의 피가 있고 그것은 약 46초 내지 1분마다 심장에서부터 뿜어져 나와 온 몸을 한바퀴 돈 후에 심장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피가 없으면 사람은 죽는다. 피는 곧 생명이다.

고기를 먹는 것이 허용되지만 피는 먹지 말라는 것은 후에 모세의 율법에 명문화되었다(레 17:10-11). 그러므로 고기를 먹는 자는 그것의 피를 다 뺀 후에 먹어야 했다. 그러나 구약의 이 법은 신약 아래서 폐지되었다. 피를 먹지 말라는 법은 의식법에 속한다. 구약의 의식법들은 신약 아래서 폐지되었다. 골로새서 2:16-17,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5절]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 . .

하나님께서서는 반드시 사람의 생명의 피를 찾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짐승이 잘못하여 사람을 죽였을 경우 그 짐승은 죽임을 당해야 한다. 출애굽기 21:28,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또 형제가 그 형제를 죽였을 경우 그는 사형으로 그 죄값을 받아야 한다.

[6절]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 . .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이 남의 생명을 존중히 여겨야 할 것을 강조하셨다. 그는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마땅히 자신이 피를 흘려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즉 살인 죄는 사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사람의 생명을 다른 사람이나 심지어 짐승으로부터 보호하

시려는 의도에서 주신 법이다. 이것은 개인적 보복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재판에 의한 사형 집행을 뜻한다. 살인자를 사형으로 응징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이다. 사람은 짐승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므로 살인은 사람에게 죄를 짓는 악일 뿐 아니라, 그를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큰 악이며, 따라서 그 악은 사형으로 응징되어야 한다.

물론, 율법에는 고의적이지 않고 부지중에, 실수로 저지른 살인의 경우 그 살인자가 죽음을 모면할 수 있게 했다. 그런 자는 이스라엘 땅에 도피성들 중 하나로 피신하여 들어가 살 수 있었다(민 35:15).

사형 제도는 오늘날에도 필요하고 정당한 법이라고 본다. 사형은 극악한 죄에 대한 공의의 징벌과 그와 유사한 범죄의 예방을 위해 또 사회의 정의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라”는 주의 말씀(마 5:39)은 개인적 보복을 금하신 것이며 재판 제도와 사형을 부정하신 것은 아니라고 본다.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서는 노아의 가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1절의 내용을 반복하시며 강조하셨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수정하시거나 취소하신 적이 없다. 과거에 인구 증가와 자원 문제를 고려하여 산야 제한을 주장한 것이나 오늘날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을 구실 삼아 임신과 출산을 기피하는 것은 인간적 생각일 뿐이다.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 자녀를 많이 출산하는 다산(多産)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뜻이며 복이며, 사람의 의무이며 선한 일이다. 사람은 자신의 건강이나 경제 여건이 아주 어렵지 않다면 또 특별한 사명의 걸음이 아니라면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을 복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시편 127:3-5, “자식은 여호와와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진통(箭筒) 화살 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물론, 낳은 자녀를 경건하고 도덕적이게 바르게 키우고 양육하는 것은 부모의 중요한 의무이며 책임이다. 세상 공부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며 또 필수적인 일도 아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경건하고 도덕적이게 키우는 일이다. 바른 인격이

되지 못하고 세상 지식만 갖춘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며 세상의 구원과 평안을 위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8-10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 . .

하나님께서서는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언약을 세우셨다. 8-17절의 본문에 ‘내가 . . . 세우리니’ 혹은 ‘내가 . . . 세운’이라는 말이 세 번 나온다(11, 12, 17절). 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내 언약’이라고 표현하신다(9, 15절). 언약의 대상은 노아와 그 아들과 그들의 후손과 또 그들과 함께한 모든 생물들, 즉 새들과 기축들과 땅의 짐승들, 즉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과 자연계 전체이었다.

언약(베리스)은 하나님의 섭리 방식이었다. 그는 에덴 동산에서 순종을 조건으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었다(창 2:16-17). 또 그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며 방주를 만들게 하셨다(창 6:18). 또 그는 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 표로 할례를 명하셨다(창 17:7). 또 그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고(출 24:7; 34:27-28) 그 표로 안식일을 주셨다(겔 20:12). 이것이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옛 언약 곧 구약이다. 또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과 새 언약 곧 신약을 세우셨다(눅 22:20). 새 언약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이며 세례는 그 표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언약을 통해 자신을 낮추시며 스스로를 제한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겸손의 한 표현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 사회의 계약과 달랐다. 인간 사회의 계약은 서로간의 동의 아래 이루어지는 쌍방적 약속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 약속이다. 그것은 일종의 명령, 즉 약속 있는 명령이었다.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 . .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내용은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는 것, 즉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15절에서도 그는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약속이었다. 자동차 사고를 경험한 자가 자동차 운전을 두려워하고 꺼려하듯이, 홍수 심판 후에 사람들과 새들과 짐승들은 비가 많이 오면 혹시 다시 홍수로 인한 멸망이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통해 그들에게 이러한 두려움

을 제거하시고 평안과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셨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모든 사람들과 생물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편적 호의와 은혜이었다.

물론, 세계적 홍수 심판은 다시 없을 것이나, 부분적, 지역적 홍수는 있을 것이며,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유향불비 심판이나 가나안 땅의 완전한 진멸 같은 지역적 심판도 있을 것이다. 또 마지막 날 세상에는 불 심판도 있을 것이다(벧후 3:6-7). 그러나 오랫동안 평안이 지속될 것이다. 본문 12, 16절에서, 이 언약은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이며 “영원한” 언약이라고 표현된다. 이것은 이미 창세기 8:21-22에서 암시되었었다.

[12-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 혹은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다. ‘무지개’라는 원어(케웨스)는 ‘활(bow)’이라는 뜻이다. 무지개(rainbow)는 물방울로 만들어진 활 모양이다. 무지개는 언약의 표로 주어졌다. ‘증거’라는 원어는 ‘표(sign), 증표(pledge)’라는 뜻이다. 17절도 무지개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증표임을 말한다. 증표는 하나님의 언약의 확실함과 견고함을 나타낸다.

무지개는 비가 온 후 아직 공중에 물방울이 많이 있을 때 햇빛이 물방울에 굴절되어 일곱 가지 색깔을 내는 신비로운 모양이다. 비가 개었어도 사람들이나 새들과 짐승들이 홍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만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주실 것이다. 줄과 화살이 없는 활 모양의 그 무지개는 사람에게 공포를 주는 활이 아니고 위로를 주는 활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보실 때 그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실 것이며(15, 16절)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키실 것이다. 무지개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제거하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줄 것이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복이다. 1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결혼과 자녀 출산은 하나님의 뜻이며 복이며 또한 사람의 의무요 선한 일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고의로 그 뜻을 저버리고 거스르고 있다. 우리는 결혼과 자녀 출산이 짐스러운 일이 아니고 귀하고 복된 일임을 깨닫고 사모하며 감사히 받아야 할 것이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육식을 허락하셨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본래의 음식은 채소와 과일이었다. 그러나 홍수 심판 후, 아마도 사람의 기력이 쇠하여졌

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육식을 허락하셨다. 살아 움직이는 것을 먹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살생은 죄가 아니다. 채소만 먹어야 한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딤후 4:4).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언약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자손들에게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표로 무지개를 주셨다. 이것은 홍수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위로이었다. 그러나 비록 홍수 심판은 없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불 심판이 남아 있다(벧후 3:7). 불의 한 지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며 회개치 않는 모든 죄인은 지옥 불못에 던지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죄를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명령대로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

주일오후설교 율법을 어긴 벌

[레위기 20:1-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자식을 불태워 물레에게 제물로 드리는 사람은 사형을 시켜야 했다.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경내에서 그런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그런 자도 사형을 시켜야 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또 만일 어떤 성읍이 그런 악한 일을 못 본 채하고 내버려두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재앙으로 그와 그 가족들을 죽이실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6절]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거짓된 신비주의를 따르는 자들은 사형시켜야 했다. 거짓된 신비주의는 영적 간음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음란하듯’이라는 표현을 한 것이다. 영적으로 말해, 사람의 남편과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사람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섬기며 따라야 한다.

[7-8절] 너희는 스스로 깨끗케 하여 거룩할지이다.

우리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로부터 깨끗하고 거룩해야 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규례들을 지켜 행해야 한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9절] 무릇 그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시켜야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1:17에서도 “그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명하셨다. 모세는 신명기 27:16에서도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고 말하였다. 부모를 공경함

은 하나님의 뜻이다.

[10-13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하나님께서서는 여러 가지 간음과 음행의 죄에 대한 벌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남의 아내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여야 했다. 결혼 관계의 순결성은 잘 지켜져야 한다.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 즉 그의 어머니 혹은 계모와 간음하는 것은 매우 부도덕한 일이며 둘 다 사형을 당할 큰 죄악이다. 사람이 그의 며느리와 간음하면 그것은 가증한 일이며 그 두 사람은 죽임을 당해야 했다. ‘가증한 일’이라는 원어(테벨)는 ‘문란한 일’(BDB)이라는 뜻이다. 사람이 여자와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토에바)을 행한 것이며 반드시 사형시켜야 했다. 동성애(同性愛)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이며 사형에 해당하는 큰 죄악이다.

[14-17절] 누구든지 아내와 그 장모를 아울러

사람이 아내와 그 장모를 함께 취하면 혹은 결혼하면(NASB, NIV) 악행(잡마)이며 그와 그들 곧 그 셋을 다 불태워 죽여야 했다. 그 셋을 ‘함께 불사르라’는 말씀은 그들의 죄가 심히 큼을 나타낸다.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그 짐승도 죽여야 하고 또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여자와 짐승을 다 반드시 죽여야 했다. 사람이 짐승과 교합하는 것도 큰 죄로 간주된다. 사람이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을 취하면 부끄러운 일이며 그들은 그 민족 앞에서 끊어질 것이다. ‘끊어진다’는 말은 사형이나 출교를 의미하였다고 본다.

[18-21절] 누구든지 경도하느니 월경하느니 여인과

남자가 월경하는 여자와 동침하는 것은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질 죄이다. 곧 월경하는 여인을 범하는 것도 사형죄에 해당하였다. 사람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거나 백모나 숙모의 하체를 범하면 무자(無子)히 죽을 것이다. ‘무자(無子)히 죽는다’는 말은 자녀 출산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본다. 그것이 본장 전체의 문맥과 내용상 가장 자연스러워 보인다. 또 사람이 형제의 아내를 취하면 더러운 일이며 그런 자도 무자(無子)히 죽을 것이다. 그런 자도 자녀를 출산치 못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더러운 일’이라는 원어는 ‘가증한 일’이라는 뜻이다.

[22-24절]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앞에 언급된 여러 가지 간음과 음행의 죄악들은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유행하던 풍속이었다. 하나님께서

는 그들의 행위를 가증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풍속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가나안 땅의 심히 죄악됨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가나안 땅을 무자비하게 징벌하시고 그 거민들을 다 죽이기를 원하셨는지 알 수 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미워하신다. 그는 특히 모든 우상숭배의 죄들과 모든 음란한 죄들을 미워하신다. 그것들은 사람들을 지옥에 떨어뜨리는 죄악들이다.

[25-26절] 너희는 짐승의 정하고 부정함과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셨다. 그는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다.

[27절]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신접하거나 박수가 된 남녀는 반드시 죽여야 했고 우리 자신이 거저된 신비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본장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실행해야 한다. 우리는 우상숭배치 말고 거짓된 신비주의에 빠지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본장은 간음과 음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경계한다. 성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성의 잘못된 사용은 죄악이다. 부부관계를 벗어난 모든 성행위는 죄악이다. 온갖 근친상간의 행위가 그렇고 심지어 동성간이나 짐승과의 교합도 그렇다.

둘째로, 우리는 율법을 어긴 벌이 죽음인 것을 알아야 한다. 본문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는 말씀이 여덟 번(2, 9, 10, 11, 12, 13, 15, 16절),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혹은 “끊어지리라”는 말씀이 다섯 번(3, 5, 6, 17, 18절), “불사르지니라”는 말씀이 한 번(14절), “무자(無子)하리라”는 말씀이 두 번 나온다(20, 21절). 또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는 말씀이 다섯 번(9, 11, 12, 13, 16절), 또 “그들이 그 죄를 당하리라”는 말씀이 세 번 나온다(17, 19, 20절). 율법을 어긴 죄의 벌은 죽음이며 그것이 죄인이 받아야 할 정당한 죄값이다. 간음의 죄는 가정적, 사회적 폐해를 낳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온다. 우리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義)만 의지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힘써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본장에서 죄의 벌을 선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과 순종의 삶을 원하신다. 우리는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가운데 거룩한 생활을 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가르치고 실천하게 해야 한다. 그것이 복된 삶이며 영생에 이르는 삶이다.